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2월 22일 (제78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생각과 육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내가 종종 인용하는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결국 머리를 게으르게 놀리는 자라고.

손은 결국 머리에 의해 움직인다. 손에 자율신경이 있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인다. ‘저것을 집어라’고 머리가 명령하면 손이 움직여 잡고, ‘종이접기를 하라’는 머리의 지시에 의해 손이 움직여 종이를 접는다. 그래서 나는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은 결국 머리를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머리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자는 부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 1960년대,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다. 그런데 한 선원이 냉동 컨테이너 속을 살펴 들어 간 사이에 그만 밖에서 문을 잠가 버린 일이 일어났다. 컨테이너가 워낙 커서 안까지 살펴볼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은 출발했다. 갇힌 선원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선원은 냉동실에 갇혔으니 자신은 곧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곧 몸이 마비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생각대로 정말 얼어 죽었다. 항구에 도착하여 컨테이너를 열어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인해 놀랐고, 그가 얼어 죽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사실 냉동 컨테이너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고, 충분한 공기와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뭔가 이루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하고, 생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생각을 조직화할 때 그것이 육체를 지배해서 결국 성공과 승리와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 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23:7).

기도했으면 찾아라

‘기도는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누누이 말씀하신다. 또한 목사님은 기도한 것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신다. 내가 기도해놓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는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허공만 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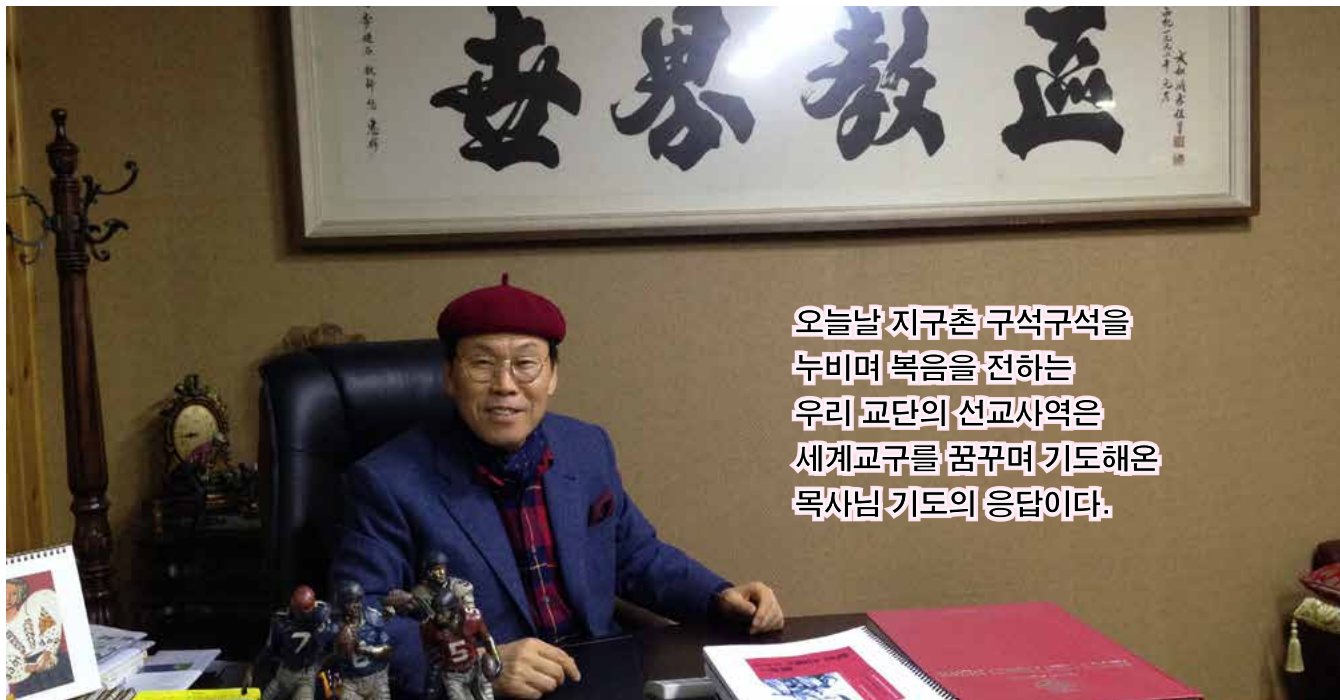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할 자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을 아뢰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끝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실제 행동은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우자를 놓

날 수 있었다. 암 3기였던 아브라함 목사의 아내를 살린 일이다.

기도했으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세다. 또한 기도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자세가 참 믿음의 자세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

의 사도로서 목사님을 쓰고 계신다. 그러나 그 전개방향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 목사님은 단지 그 부르심을 따라 가시는 것이다. 남미라는 먼 선교지를 다녀오실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치기에 “내가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하시며 해외집회를 줄이려는 생각도 가지셨던 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년을 더 뛰라신다.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능력도, 체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이 새로운 30년을 선포하신 이후 더욱 정력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 그 증거다.

필리핀(Philippines)을 제 2의 남미로 삼



오늘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역은
세계교구를 꿈꾸며 기도해온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다.

고 믿음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실상 사람을 고를 때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이것저것 조건을 따진다. 써주시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기도하고는 막상 오지로 가라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한다. 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목사님은 코스타리카(Costa Rica)로 떠나시면서 일정보다 하루 더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구두 약속도 하셨다. 그런데 일정을 진행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친데다가, 갈 길이 너무 먼 양해를 구하고 취소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다고 목사님께 누가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했기에, 약속은 곧 생명이기에 그 먼 길을 마다않고 가셨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만

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정점을 찍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해외집회 일정을 조율하는 송 전도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역지로 여기저기 집회를 잡으려 하지 마라. 물 흐르듯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로 집회를 잡아 진행하면 뭔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성도들에게도 보여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사님의 철저한 원칙이다.

목사님은 세계교구를 꿈꾸며 기도하셨다.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제목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사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아 멕시코(Mexico)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보겠다고 말씀하신다. 목사님이 이렇듯 해외선교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세계교구를 두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믿기 때문이다. 그 전개방향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는 알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기도만 해놓고 주저앉아있는가? 아니다. 기도했으면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야 한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맛보고야 말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2015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시간: 매주 수요일 밤 8:0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7~8)



‘필요’와 ‘기필코’는 부자관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하면 안 되지요. 아파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자 아버지를 두면 자식들도 다 부자로 잘 삽니다. 권력 가진 아버지를 가지면 어깨에 힘주며 큰소리치며 삽니다. 세상의 왕을 아버지로 둔 자들은 공주, 왕자라 불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마저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무력하게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더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니 결국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라고요. 축복을 받는 비결도 조건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조건 준다가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준다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고,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됩니까? 기도와 행함입니다.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함은 부부관계와 같아 결과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무기력하게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회개기도가 우선되어야

도로 가난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역전극을 펼친 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기도 후에 찾고 두드린 자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을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출14:15),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도(출15:25),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모세는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나도 평생의 소원인 자식을 기도로 얻었고(삼상1:27),

히스기야가 앗수르 침공과 산헤립의 농락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
던 것
도 (왕하
19:19), 그가
죽을병에서 고침
을 받고 15년 더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왕하20:2). 또한 에스더가 풍전 등화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에4:16), 다니엘이 굶어 허기진 사자의 굴속에서 털끝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하루 세 번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응답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 세상 말에도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습니다. 넘어갈 때까지 하라는 말입니다.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하루 10분 기도하면서 설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려면 ‘이루고야 말겠다, 해내고야 말겠다’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듯 말입니다. ‘기필코 정신’이지요. ‘필요’

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필코’라는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십니까?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물어물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고 말씀하셨습니다.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여 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의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기필코 정신’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



총회장 이초석 목사

라”(막7:29)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필코’ 내 원한을 풀고 말리라며 매일 재판관을 찾아간 한 과부의 이야기(눅18:1~8)며, 여행 중에 찾아온 벼를 위하여 떡을 얻고야 말겠다는 어떤 친구의 이야기(눅11:5~8)처럼, 우리도 이 ‘기필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엘리야도 ‘기필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작정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종식시켰던 것입니다(왕상18:42).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조건 OK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달랜다거나 해달라고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인 자식이 결혼시켜달라고 OK 그럽니까? “학생이 무슨 결혼? 안 돼.” 이럴 것입니다. 아직 면허증도 없는 자식이 자동차 사달라고 하면 “기다려.

면허증부터 따.”라고 하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응답이고, ‘기다려’도 응답이고, ‘안 돼’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다시 기억된 바 될 때까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던 것처럼,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건진 일을 왕이 알기까지 한 세월이 지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더 좋은 때요, 가장 좋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은 까닭입니다(약4:2). 큰 것을 얻지 못함은 여러분이 작게 구해서 그렇습니다(시81:10).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과산 직전입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걱정입니까? 명퇴했는데 할 일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무슨 걱정입니까? 당신의 기도가 짧을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기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십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마4:2). 예수님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막1:35),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서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눅5:16). 또한 12제자를 뽑을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눅6:12),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애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눅22:44).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자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눅23:34).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천국열쇠를 쥐고도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생활한다면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풍족은 모든 것의 풍족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문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마음과 기도도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

그러면 ‘기도하고 행하면 다 됩니까?’라고 묻고 싶겠지요? 그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약속하셨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에는 기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벌써 작년 말의 일이네요. 어느 장로님이 기획실 직원에게 점심을 사주신다는 말을 들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들 잘 챙겨 입고 가라. 아무렇게나 입고 가서 책잡히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요? 그 때 저희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 같다고요. 진짜 아버지 같았습니다. 행여 자식이 나가서 안 좋은 말이라도 들을까봐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시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목사님에게서 읽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가끔, 아니 자주 목사님을 속상하게 하고, 목사님이 흡족할 만큼 일을 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저희 모두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주 많아요. 저희가 목사님을 속상하게 하고, 목사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못하는 것은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부족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족해서 목사님의 뜻을 잘 몰라 그런 겁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직업 이상의 일,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늦은 밤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로 번뇌하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이 사시는 목사님의 고뇌를 보고, 수장의 어려움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흡사 밤바다

를 지키는 등대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행여 선박들이 어둠 길에서 헤맬까봐, 침몰될까 나는 잊고 오로지 빛을 밝히는데 전념하는 등대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등대도 전력이 떨어지면 꺼 집니다. 그래서 늘 충전이 필요하지요. 목사님도 충전이 절실합니다. 저희는 목사님의 건강이 늘 염려됩니다. 목사님이 낳은 첫째야 서른 살이 되었지만, 늦둥이도 있고, 나이는 들었지만 제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도 있고, 철이 늦게 드는 자식도 있는데 건강하셔야 더 키워주시지요. 그리고 장성한 자식들 효도도 받아보셔야죠.

목사님! 저희는 참 복이 많은 자들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도 큰 복이지만, “너희는 나중에도 나랑 같은 상을 받는 거야.”라는 목사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머리 가는데 몸도 간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비록 저희 하는 일이 작고 미흡하지만 목사님과 동일한 상을 받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그러니 저희는 대복을 받은 자가 맞지요?

밤이 늦도록 일을 하시면서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이저(energizer) 목사님,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끝판왕 목사님,정이 유난히 많으신 다정다감한 목사님! 남에게는 정직, 자신에게는 진실을 실천하시는 목사님! 초공정의 왕이신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한 30년! 저희도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가시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일동

시각의 차이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하나 서있다. 사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가 협상하기를 그 동상이 서있는 동안은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이 없이 우호관계를 유지하자고 합의를 하고 이 동상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만든 이 동상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뻔 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그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칠레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계시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동상의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칠레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 일은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상하게 했고, 칠레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거칠어져 곧 전쟁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다.

바로 이때 한 현명한 기자가 신문에 글을 실었다. 글인즉 이렇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계시는 이

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 감독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의 글은 전체 칠레 사람들의 감정을 가라앉혔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두 나라를 구출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이나 현상은 달리 보인다. 시각이란 곧 어떤 안경을 썼느냐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은 빨강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인다. 이 시각적인 차이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낳는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보셨을까?’ 생각한다면 오판할 리 없고, 오산할 리 없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당신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12)



::성경에세이::

존댓말을 합시다

여보게!

올 신년축복성회 첫 시간에 나는 ‘명품인생이 되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했네. 멋지고, 맛나고, 값지고, 알찬 삶을 살자는 뜻이었지. 내가 70 가까이 살아보니까 양보다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 삶은 양 못지않게 질이 더욱 중요하지. 이것은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품격을 높이는 인격의 문제라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산 위의 동네 같아서 더욱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네.

내 설교를 듣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네. 바로 서울교회 이시대 목사네. 이시대 목사는 명품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존댓말을 쓰는 것이라고 설교했네. 사실 목사들이 어린 자매들이나 형제들에게 반말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거든. 때론 나이든 분들께도 말을 놓아서 심정을 상하게 할 때도 많지.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아무리 어렵도 ‘자매님’, ‘형제님’ 하자고 한 거라네. 교회니까 교회에서 존 직함을 부르면 되는 거라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

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자는 거지.

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옳거나 하고 무를 쫓다네. 행동보다 말이 먼저거든. 존댓말을 써놓고 합부로 행동하거나 무례를 범치는 않을 거 아닌가.

여보게!

자네는 명품인생인가? 아니면 삼류인생인가? 잘 모르겠거든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쳐줌세. 아주 쉽다네.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네. 자네 아내가 자네를 인정하는지, 자네 애들이 자네를 아파로서 존경하는지, 자네 부모가, 그리고 자네 직장 동료나 부하직원이 그러는지 생각해보게. 그 사람들이 자네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면 자네는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명품인생이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네는 명품인생과는 거리가 멀다네. 가장 잘하는 설교는 가족들이 은혜를 받느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 오늘 가족에게 한 번 물어보게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품인생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5~7). 그리스도인의 8음계지. 어디 이쁜인가.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고 했네. 이것이 명품의 삶을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네.

가끔 교회 안에서도 기도생활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격은 영 아닌 사람들을 보네. 권사, 장로가 화 좀 나면 세상에서나 쓰는 욕두문자를 거침없이 내뱉고, 양보도, 배려도 없는 자들이 있지. 그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나.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아내의 행위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네. 인격을 갖추고 사랑을 행하는 것도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지.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명품인생을 산다면 그를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리라 믿네.

자네도 노력해보게. 우선 존댓말부터 쓰도록 하게나.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에티오피아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정부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그들의 예배를 훼방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갖은 수를 다 동원하여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 애썼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단히 버리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기필코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을 것이요.” 그들은 목사님의 세 살 난 딸을 붙잡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아기를 2층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한바탕 난리가 나고 예배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인 사모님은 조용히 내려가 비참하게 죽은 아기를 품에 안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당황한 공산주의자들을 뒤로하고 목사님과 성전안의 모든 성도들은 사모님의 모습에 호응하듯 예배를 끝까지 이어갔고, 이 사건에 격동한 무려 40만 명의 에티오피아 신자들은 공산주의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수련회에 대대히 참석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짧은 예배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 메시지와 게임, 화장실 용무, 예배 전후의 약속과 경조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름 값!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인도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교회행사며, 수련회며, 예배 등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따라갔습니다.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였고, 어려운 가족 형편 중에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여 하위권 성적인 저는 힘든 부모님이 행복해지시는 것을 꿈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했고, 차츰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만 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쉬는 시간에 밥 먹고 식사시간에는 공부를 했고, 등하교길 차에서도 공부만 했고, 하루 종일 공부 또 공부만 했습니다. 차츰 성적이 올랐지만, 머리가 썩 좋지 못했던 저는 고3이 되자 강박증이 와서 학습이 매우 힘들어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강박증에 시달리던 저는 중요한 고3을 망치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원하던 의대를 가지 못하여 다시금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우연히 당시 인기가 상승하던 한의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한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강박증으로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군대에 다녀와 조금 나아졌으나 근본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왕 공부도 못할 거면 기독교 동아리에서나 활동하자 생각하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녔으며, 매일 성경도 읽었고, 경제활동도 좀 일찍 하면서 20대를 마쳤습니다.

유급만 면할 정도로 간신히 한의대를 졸업

하고 나니 눈앞에 닥친 것은 국가고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나아졌던 강박증이 다시 심해져서 이제 여기서 끝인가 했습니다. 앞친 데 뒤휈 격이라고 할까, 그 당시 집사람이 류마티스로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공부하다 말고 집에 가서 집사람 마사지를 1시간씩 해주어야 했고, 가장으로서 경제활동도 해야 했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집사람 마사지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국가고시 보기 한 달 반전쯤부터 저를 괴롭히던 강박증이 갑자기 없어지고, 돕는 동기가 생겨 그 당시 불합격한 친구들이 어느 해보다 많았음에도 여유 있는 점수로 국가고시에 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집사람이 시댁과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여 정신건강이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원한 한의원에서는 정신질환, ADHD, 우울증, 자폐증, 정신분열증, 틱장애 등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 새 없이 배우고 치료하며 연구했으나 집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을 실감했었죠. 유명한 한의원, 정신과,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수소문했으나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권할 뿐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이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방에서 가려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갑자기 붓기가 빠지더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집사람을 곧 잃어야만 하는 막차를 태우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집회를 다녀온 후로 먹여줘야 밥을 먹던 집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적극성도 보이고, 매일 목사님 설교를 3, 4편씩 듣고 기도하면서 몸이 차츰 좋아지고, 정서적으로도 회복했습니다. 목사님께 안수 받을 때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집사람을 조금씩 회복시키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연구하고 공부하다보니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나가다보니 점점 더 자폐증, 정신분열증, 간질, 발달장애를 치료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고, 아니 하도 답답해서 할 말도 없었지만... 긴 터널을 나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쓰디쓴 인생의 육해공중전의 경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길에서 이초석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 경영의 말씀, 인간관에 대한 말씀들은 매주 삶이 되고 피가 되어 한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어디서든 듣기 힘든 귀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열정적인 설교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꿈과 희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의사 설재현
keolmed@hanmail.net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익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너무 세게 일어나므로 아무도 선뜻 뛰어 들지 못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에 뛰어 들어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의식을 찾은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남자에게 감사인사를 하자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하더군요. 이름값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삼성이나 현대처럼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다듬고 가꾸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단체나 이름의 중요성, 곧 ‘브랜드 파워’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브랜드파워가 160억 달러에 이르고, 지금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외국 상표 이름 하나 빌려 오는데 수천억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상표는 미국 내에 생산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전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 오고 오직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도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불티나게 비싼 값에 팔려 나가는 것은 이름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전7:1)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값!’,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름! 육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각자의 이름에는 값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 유일한 내 이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봅시다.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동요 중에 ‘손이 쭈뼛쭈뼛, 발이 쭈뼛쭈뼛’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다. 노랫말을 보면 손발이 찬 이유는 모두 겨울바람 때문이란 다. 하지만 겨울이 아닌 한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워서 괴롭다며 진료실을 찾는 환자가 많다. 이런 경우를 ‘수족냉증’이라 한다. 수족냉증은 차가운 냉기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손이나 발에 지나치게 냉기가 느껴지는 경우로 직접 손이나 발을 만져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아무리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여도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환자,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수족냉증은 더욱 심해진다.

의학적으로 수족냉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레이노 증후군, 류마티스성 질환,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말초신경염, 손목터널 증후군, 갑상선기능저하증, 혈관염, 빈혈,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질병을 의심할 수 있다. 여러 원인 중 임상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병은 레이노 증후군에 의한 수족냉

증이다. 레이노 증후군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손발의 말초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손발이 혈색이 없는 하얀색으로 보이다가 점차 푸르게 변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붉게 변한다.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거나 증상이 금방 사라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밖에 혈관의 기능적 이상이나 구조적 이상,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증의 악화, 빈혈이나 갑상선기능저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족냉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를 통해 정확히 찾아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족냉증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손발 저림이다.

최근 들어 손발 저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 때문이다. 손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목 디스크를, 다리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X-ray,나 CT 촬영을 통해 디스크 여부를 확인하면 손발 저림의 원인을 확실하 할 수 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도 손발 저림이 있을 수 있다.

그 밖에 혈관수축, 경련, 혈관이 막히는 등의 말초혈액순환장애로 인해 손발 저림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저리기보다는 아픈 통증이 주된 증상이며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염의 초기 증상으로 손발 저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독증, 결핵약이나 통풍약, 항암제 등의 약물 복용했을 때, 영양부족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과호흡 증후군이 있을 때도 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발 저림 증상 역시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되므로 증상이 심할 때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 받도록 해야 한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